

일본 경제 동향_2017년 3월

(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의 금융완화 유지)

< 목 차 >

I. 일본 경제 지표	1
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	2
1.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	2
2. 무역수지 흑자 전환	6
3. 엔저후퇴·주가하락·금리상승	9
4. 해외직접투자 감소세 반전	10
III. 일본의 주요 정책	12
1. 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의 금융완화 유지	12
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	14
1. 대일 무역적자 증가세 반전	14
2.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	16
V. 참고 자료	18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	18
2. 주요 경제 일정	20

1. 일본 경제 지표

구 분	2015	2016	2016				2017				
			1/4	2/4	3/4	4/4	11월	12월	1월	2월	
경기 동향지수(일치지수, 2010=100)	-	-	-	-	-	-	115.7	115.6	114.9	-	
GDP증가율(연율,%)	1.2	1.0p)	1.9	2.2	1.2	1.2p)	-	-	-	-	
국내투자(조엔)	민간설비투자	70.1	75.9p)	19.9	15.8	19.9	20.5p)	-	-	-	-
	공공투자	23.4	24.3p)	6.6	4.3	6.1	7.2p)	-	-	-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70.0	68.2	19.6	12.7	18.6	17.1	4.8	6.9	5.7	-	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0.5	△0.3	△0.3	△0.1	0.0	0.2	0.0	0.0	△0.2	-
	전년동기비	0.5	△0.3	△0.1	△0.4	△0.5	△0.3	△0.4	△0.2	0.1	-
실업률(%)	3.4	3.4	3.2	3.2	3.0	3.1	3.1	3.1	3.0	-	
수출(조엔)	75.6	70.0	17.5	17.0	17.0	18.6	6.0	6.7	5.4	6.4	
수입(조엔)	78.5	66.0	17.2	15.5	16.0	17.2	5.8	6.0	6.5	5.5	
무역수지(조엔)	△2.9	4.1	0.3	1.5	1.0	1.4	0.2	0.6	-1.1	0.9	
경상수지(조엔)	16.4	20.6	5.9	4.6	5.7	4.2	1.4	1.1	0.07	-	
환율	달러	121.1	108.8	115.3	108.1	102.4	109.4	108.2	116.0	114.7	113.1
	원화(100엔)	935	1,068	1,043	1,076	1,095	1,059	1,074	1,019	1,030	1,013
금리(10년물,%)	0.36	△0.05 1	0.051	△0.12 1	△0.12 8	△0.00 7	△0.014	0.054	0.062	0.085	
주가(닛케이)	19,203	16,920	16,843	16,393	16,500	17,951	17,690	19,066	19,194	19,189	

주: p)는 2차 속보치 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(경기판단)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

○ '17.1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4.9로 전월비 0.7p 하락

(소비자물가) 소비자물가 하락

○ '17.1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-0.2%

(무역수지) 무역수지는 8,134억 엔 흑자

○ '17.2월 수출은 6조 3,465억 엔, 수입은 5조 5,331억 엔

(환율) 엔저 후퇴

○ '17.2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3.1 엔으로 전월비 1.4% 엔고

* '17.2월 엔/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,013원으로 전월비 1.7% 엔저·원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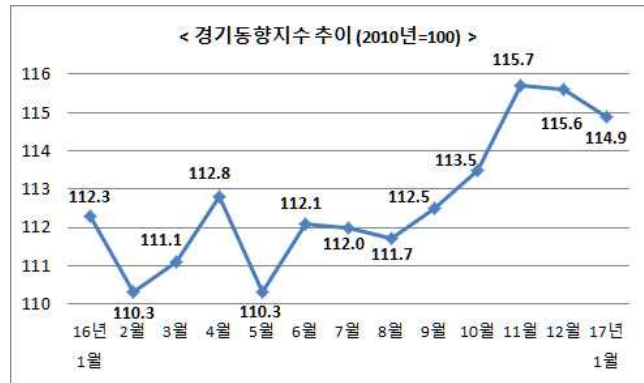
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1. 경기 완만한 회복기조

□ (경기기조 판단)

○ 경기는 일부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완만한 회복기조가 지속

-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는 전체적으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
- 설비투자와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
- 기업수익과 고용사정은 개선되고 있음



자료 : 내각부

○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12월 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, 2010년 100)는 전월보다 0.7p 하락했으나, 내각부는 기초적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

- 전월과 비교 가능한 7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월을 하회한 가운데, 자동차의 출하가 감소한 외에 화학, 범용기계 등의 생산도 부진

□ (전 망)

○ 일본 내각부는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완만한 회복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음

- 특히 2016년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28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과 최근 미일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저 및 주가상승 영향으로 수출, 내수 모두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
-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05.5로 전월보다 0.6p 상승

○ 다만 미국의 보호주의적 정책, 중국경제의 감속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상존

<GDP>

- 일본 내각부가 3월8일 발표한 2016년 4분기(10-12월) 실질 GDP성장률(개정치 : 2차 속보치)은 전기비 0.3%, 연율환산으로는 1.2%로 1차 속보치보다 소폭 상향 수정됨
- 최신 통계의 반영결과, 민간설비투자의 증가율이 높아진 것이 상향조정의 요인
 - 민간설비투자는 2.0% 증가로 1차 속보치 0.9% 증가에서 크게 높아짐
- 4분기 연속 플러스성장으로, 수출이 전기비 2.6% 증가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함
- GDP의 60%를 점하는 개인소비는 0.04% 증가로 1차속보치 0.01% 감소에서 약간 상향 수정되었으며, 음식업과 자동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임
- 주택투자는 0.01% 증가로 1차 속보치의 0.2%에서 하향 수정됨
- 공공투자는 건설종합통계를 반영한 결과, 2.5%감소로 1차속보치의 1.8%감소에서 감소폭이 확대됨. 경제대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- 한편 2016년 실질 GDP성장률은 1차속보치와 같이 1.0%로 5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
- 일본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2017년 1분기(2017.1-2017.3)도 1%대 전반의 성장이 지속, 2017년도 후반(2017.10-2018.3)에 걸쳐 1%대 중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

<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(%) >

구 분	2015	2016	2015				2016			
		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
전기비			1.3	△0.0	0.2	△0.2	0.5	0.5	0.3	0.3p)
전기비연율	1.2	1.0p)	5.3	△0.0	0.6	△1.0	1.9	2.2	1.2	1.2p)
전년동기비			△0.1	1.8	2.1	1.1	0.4	0.9	1.1	1.6p)

자료: 내각부, p)는 2차 속보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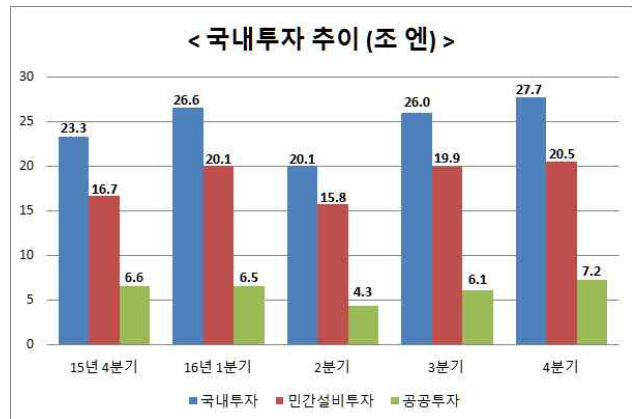
<국내 투자>

□ ‘16.4분기 국내투자, GDP의 19.7%

- ‘16.4분기 국내투자(민간설비투자+ 공공투자: 명목기준)규모는 전기비 6.1% 증가한 27.7조 엔으로 GDP의 19.7%

□ (민간설비투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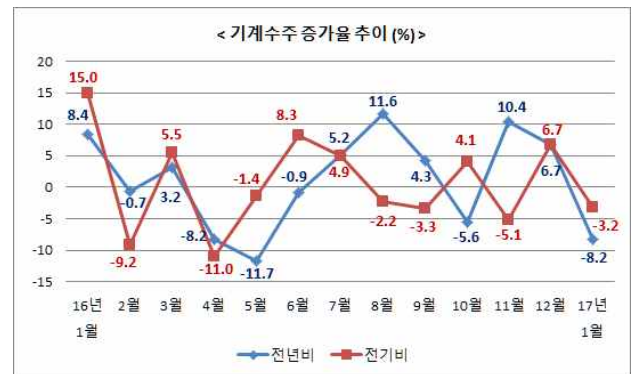
- ‘16.4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3.0% 증가한 20.5조 엔, 국내 투자의 74.0%를 차지
-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(12월 조사)에 의하면 2016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5년 연속 증가, 제조업은 6년 연속 증가, 설비투자의 과잉감은 회복 상태



자료 : 내각부

- 다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1월 기계 수주는 전월비 3.2% 감소

- 기업의 설비투자 마인드는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마이너스 요인



자료 : 경산성, 내각부

□ (공공투자)

- ‘16.4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16.1% 증가한 7.2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6.%를 차지

- 최근 공공투자의 기반은 탄탄한 편

- ‘17.1월의 공공공사 거래액은 전월비 0.8% 증가
- ‘17.2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비 8.1% 증가

- 2016년 8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가시화될 전망

<소비자물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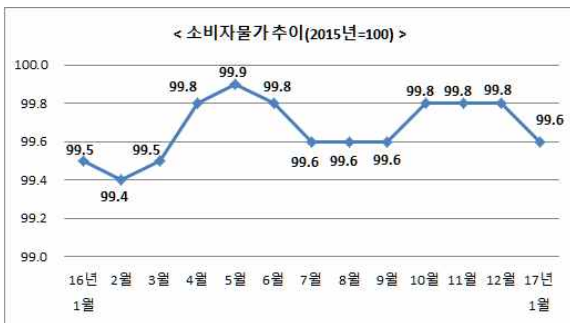
□ '16.1월 소비자물가 4개월 만에 하락

- '16.1월 소비자물가지수(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는 99.6(2015년= 100)으로 4개월 만에 0.2% 하락
 - 전년동월비로는 13개월 만에 0.1% 상승, 일본은행이 목표로 한 물가상승목표 2%에 일보 전진
 -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도 전년동월비 0.1% 상승
-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엔저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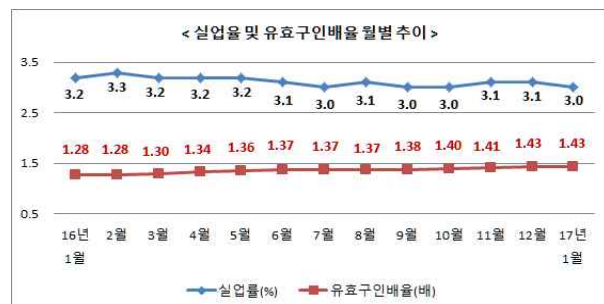
<실업률>

□ 고용사정 개선 지속

- '17.1월 완전실업률은 3.0%로 4개월 만에 전월보다 0.1%p 개선
 - 노동력인구 및 완전실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, 취업자 수는 증가
 - 남성노동자의 실업률은 전월보다 0.3% 개선된 반면 여성노동자의 실업률은 2.7%로 전월과 같음
- 유효구인배율은 전월과 동일
 - '17.1월 유효구인배율은 전월과 같은 1.43배, 신규 구인 수는 전월비 0.6% 증가
 - 운수·우편업, 사회복지·간병 사업 등에서 신규 구인수가 크게 증가
-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,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·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


자료 : 총무성



자료 : 후생노동성

2. 무역수지 흑자 전환

(총 합) 對 중국 무역흑자에 의한 무역수지 흑자

- ‘17.2월 무역수지는 8,134억 엔 흑자로 반전
 - 큰 폭의 수출증가와 수입 감소가 흑자반전의 주된 원인
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5년 만에 전월의 9,093억 엔 적자에서 1,118억 엔 흑자로 반전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3,993억 엔에서 6,113억 엔으로 확대
 -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1,728억 엔에서 2,284억 엔으로 확대

< 2017년 2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7.1월			2017.2월			2017.1-2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수 출	5.4	1.3	-19.4	6.4	11.3	18.5	11.8	6.3
수 입	6.5	8.5	8.3	5.5	1.2	-15.4	12.0	4.3
수 지	-1.1	67.8	-	0.9	245.5	-	-0.2	-51.2

자료 : 재무성

□ (수 출) ‘17.2월 수출, 금액·물량 모두 증가

- ‘17.2월 수출은 전월대비 18.5% 증가한 6조 3,465억 엔
 - 전월의 19.4% 감소에 비하면 수출은 큰 폭의 플러스로 반전
 -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18.9% 증가
- 5대 수출 품목은 플라스틱 대신에 원동기가 포함된 가운데,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
 - 원동기의 수출증가폭이 36%로 가장 크며, 이어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20% 이상의 큰 증가폭을 보임

< 2017년 2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억 엔, %) >

순위	품목	2017.1월			2017.2월			2017.1-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자동차	8,105	-6.7	-23.3	9,445	0.5	16.5	17,550	-3.0
2	자동차부품	2,600	12.5	-28.6	3,221	21.8	23.9	5,821	17.5
3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923	3.1	-16.4	3,129	16.8	7.0	6,052	9.8
4	철강	2,498	8.1	-4.8	2,685	11.4	7.5	5,183	9.8
5	원동기	1,743	0.2	-22.2	2,370	14.9	36.0	4,113	8.2

자료 : 재무성

○ 주요 지역·국가에 대한 수출도 모두 증가

-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34.9%로 가장 큼
-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6.6% 증가

< 2017년 2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 (억 엔, %) >

순위	국가	2017.1월			2017.2월			2017.1-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미국	10,540	-6.6	-23.0	12,232	0.4	16.1	22,772	-3.0
2	중국	8,871	3.1	-31.8	11,966	28.2	34.9	20,837	16.2
3	ASEAN	8,508	10.0	-25.3	9,301	10.5	9.3	17,809	10.2
4	EU	5,965	-5.6	-16.1	7,006	3.3	17.5	12,971	-1.0
5	한국	4,447	15.7	-12.3	4,739	17.4	6.6	9,186	16.7
6	대만	3,235	-3.3	-23.2	3,920	28.6	21.2	7,155	12.0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'17.2월 수입 금액, 물량 모두 감소

○ '17.2월 수입은 전월비 15.4% 감소한 5조 5,331억 엔

- 수입물량도 전월비 15.4% 감소

○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비교하여 통신기와 의류 및 동부속품 대신에 석탄과 의약품이 포함

- 수입증가품목 중에서는 의약품의 수입증가폭이 4%로 가장 큼
- 수입감소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입 감소폭이 -15.6%로 가장 큼

< 2017년 2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 >

순위	품목	2017.1월			2017.2월			2017.1-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원유	6,376	35.6	6.4	6,428	69.9	0.8	12,804	50.9
2	액화천연가스	3,732	6.7	15.4	3,592	1.6	-3.8	7,324	4.3
3	의약품	2,076	-16.3	-10.2	2,159	-23.0	4.0	4,235	-20.4
4	석탄	2,314	52.3	13.6	2,030	52.0	-12.3	4,344	52.2
5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371	-0.6	4.5	2,001	-1.3	-15.6	4,372	-0.9

자료 : 일본 재무성

- 주요 지역·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모두 감소
-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-39.6%로 가장 큼
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9.7% 감소

< 2017년 2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 >

순위	국가	2017.1월			2017.2월			2017.1-2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중국	17,964	7.2	21.0	10,848	-17.7	-39.6	28,812	-3.7
2	ASEAN	9,711	7.6	11.0	8,814	-1.5	-9.2	18,525	3.0
3	EU	6,913	-4.0	-3.4	6,594	-7.5	-4.6	13,507	-6.0
4	미국	6,547	11.9	0.7	6,119	-0.7	-6.5	12,666	5.4
5	호주	3,594	22.6	3.3	3,501	25.6	-2.6	7,095	23.6
7	한국	2,719	18.3	-0.7	2,455	9.6	-9.7	5,174	14.0

자료 : 일본 재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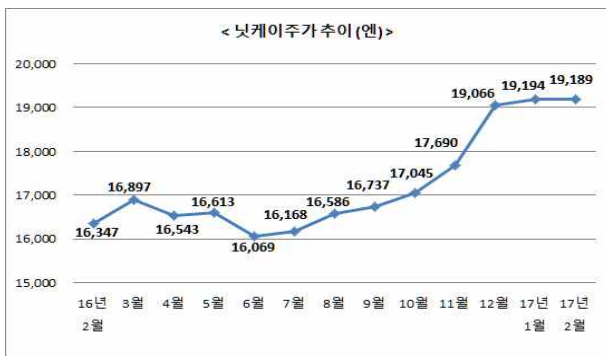
3.엔저후퇴 · 주가하락 · 금리상승

□ (주 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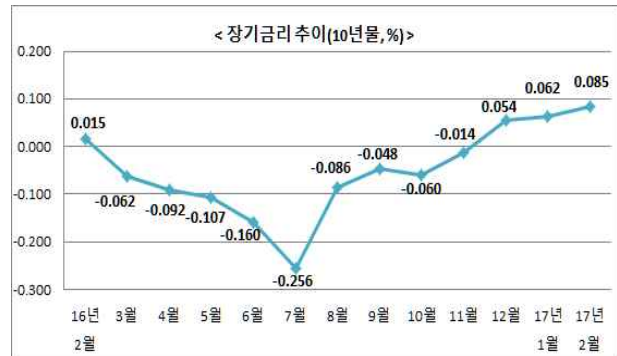
○ ‘17.2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0.1% 하락한 19,189엔

□ (금 리)

○ ‘17.2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비 37.1% 상승한 0.085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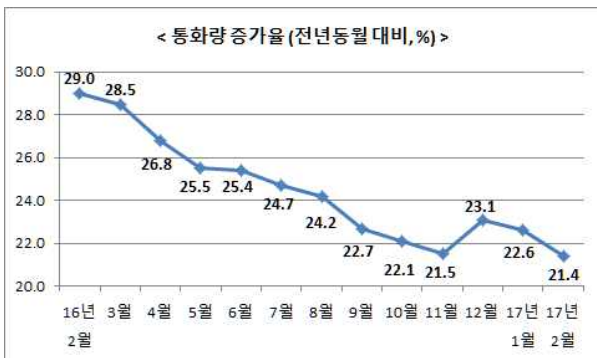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경제신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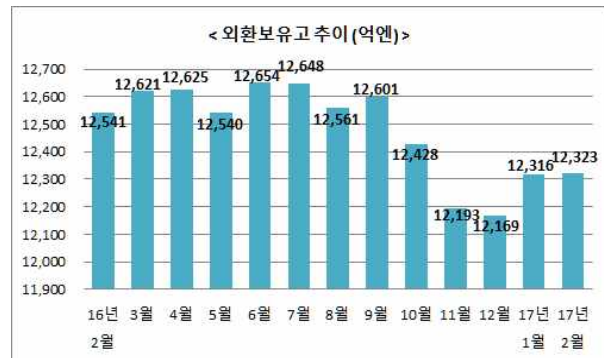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상호증권

□ (통화량)

○ ‘17.2월 본원통화(머니터리베이스 기준),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1.4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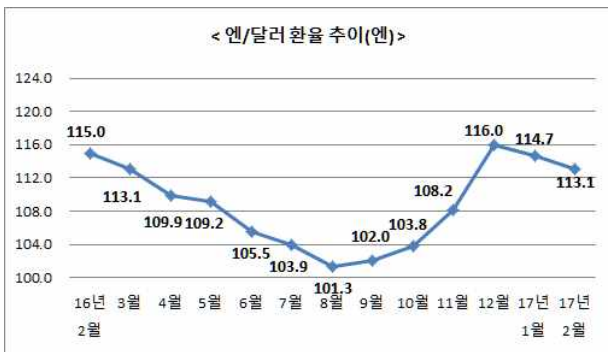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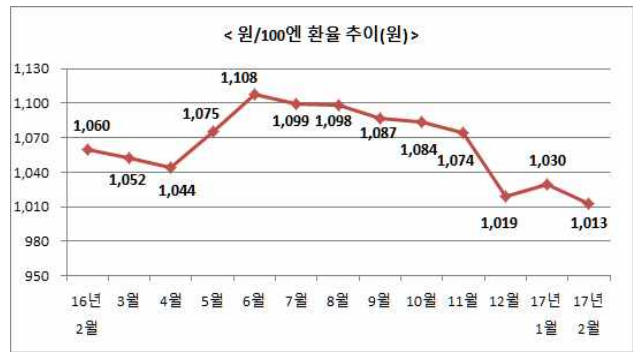
자료 : 재무성

□ (환율)

- ‘17.2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1.4% 하락한 113.1엔(엔고)
 - ‘17.3월 들어서는 115엔대까지 엔저 폭이 확대된 이후 3월 21일 현재 112.7엔으로 엔저세가 약화
- 최근 엔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및 FOMC의 금리인상 등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및 이에 따른 미일금리차 확대 등이 주된 요인
 - 그러나 달러화 강세의 부작용에 대한 미국 내 경계가 엔고반전을 야기할 가능성은 있음
- ‘17.2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,013원으로 전월의 1,030원에 비하여 1.7% 엔저·원고



자료 : 일본은행



자료 : 한국은행

4. 해외직접투자 감소세 반전

- 유럽에 이어 제 2위 투자대상국인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가 전체 해외직접투자 감소를 주도
- ‘17년 1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57,437억 엔으로 전월비 17% 감소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 기준, 억 엔, %) >

		2015	2016	2016					2017
		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2월	1월
금	액	696,396	681,657	196,248	127,675	186,332	171,402	69,212	57,437
증가율	전기비	-11.8	-2.1	-9.8	-35.0	45.9	-8.0	43.2	-17.0
	전년동기비	-11.8	-2.1	26.7	-13.7	5.8	-21.2	-10.0	-3.8

자료 : 일본 재무성, 주 :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416901

○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감소

-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폭이 -72.5%로 가장 큼
- 유럽에 대한 직접투자는 0.3% 증가
- 對 한국 직접투자는 250억 엔으로 4.6% 감소

<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 엔,%) >

국가별	2015		2016		2016				2017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4분기		12월		1월	
					금액	증가율*	금액	증가율*	금액	증가율*
대세계	696,396	-11.8	681,657	-1.7	171,402	-8.0	69,212	43.2	57,437	-17.0
아시아	141,593	19.0	80,321	-43.3	20,555	18.8	6,819	-7.0	5,955	-12.7
중 국	14,659	1.1	13,076	-10.8	3,567	19.7	1,214	-5.8	1,055	-13.1
한 국	4,714	-20.6	3,461	-26.6	912	25.1	262	-35.3	250	-4.6
북 미	237,283	-2.9	181,747	-23.4	38,586	22.8	15,380	51.9	11,004	-28.5
미 국	230,435	-2.9	176,406	-23.4	37,109	22.1	14,952	59.6	10,722	-28.3
중남미	22,758	49.4	36,110	58.7	9,125	-54.6	7,247	518.9	1,993	-72.5
유 럽	269,749	-30.4	366,263	35.8	95,998	-15.6	37,003	29.4	37,115	0.3
대양주	19,126	1.2	12,925	-32.4	5,049	189.7	1,952	399.2	923	-52.7
중동	1,805	46.9	1,581	-12.4	172	26.5	46	21.1	24	-47.8
아프리카	6,843	7.3	7,297	6.6	1,919	-0.6	766	-12.7	423	-44.8

자료 : 일본 재무성, * 전기비

III. 일본의 주요 정책

1. 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의 금융완화 유지

□ 미국의 금리인상

- 미국 연방준비이사회(FRB)는 3월15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에서 2016년 12월 이후 처음 0.25%의 추가금리인상을 결정했음
- 금융완화로부터의 출구를 서두른 미국에 비하여 일본의 출구논의는 아직 없음

□ 일본은행의 금리완화책 유지

- 일본은행은 3월16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.1%, 장기금리를 0%정도로 유도하는 금융완화책(장단기금리조작)의 현상유지를 결정함
- 구로다 일본은행총재는 강력한 금융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물가 2% 목표달성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
- 세계경제의 회복 영향으로 물가는 상승반전하고 있기는 하나 소폭에 머무름. 2% 물가상승을 목표로 철저한 금융완화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임

□ 장기적으로 엔저흐름

- 한편으로 일본은행은 금리를 낮게 억제하는 금융완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 엔달러 환율이 엔저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음
- 일본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일본은행의 판단은 유지되었음
- 개별항목에서는 수출이 해외경제의 성장으로 회복, 국내소비는 고용과 소득의 환경개선을 배경으로 견조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음

□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압력 가능성

- 물가가 거의 횡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일본은, 단기 정책금리를 미국과 같이 높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님.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계속에 따라 일본의 장기국채금리도 상승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
 - 일본은행은 2016년 9월 10년물 장기국채의 금리를 0%정도로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나 이 수준으로의 억제에 대한 시비에 관해서도 앞으로 논의를 필요로 함
 - 일본은행이 장기금리(가격)도 유도하는 이례적인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물가는 소폭 오르게 되는 상태임. 유가의 회복과 엔저가 주된 요인으로 자율적인 물가상승에는 이르고 있지 못한 상태임
- 그러나 약 1년 만에 물가상승으로 반전한 것은 다행이며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불투명한 요소도 있음. 트럼프정권이 보호주의적인 강경자세를 취할지의 여부임

□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경제에 플러스

- 일본으로서는 미국경제의 개선과 미금리의 상승이 플러스재료임. 일본의 경기부양이나 엔고저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임. 부작용을 수반하는 가일층의 금융완화를 유발할 리스크도 감소함

□ 엔저로 인한 미일무역마찰 가능성

- 그러나 트럼프정권이 일본이나 독일을 통화약세유도국가로 비판하고 이것이 미일마찰로 이어질 수 있음
 -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는 국내 물가경제를 위해 실시한다고 호소해도 미국은 엔저를 노린 것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음.
- 2017년 4월에는 미일경제대화가 있음. 일본은행은 상승하지 않고 있는 물가와 트럼프정권에 의한 견제의 양방에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따른 금융정책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
 - 이와 관련하여 구로다 총재는 앞으로도 금융완화를 확실하게 추진해나간다는 점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음

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1. 대일 무역적자 증가세 반전

□ (총 합)

- '17.2월 대일무역적자는 증가세로 반전, 전월보다 50% 증가한 2,420백만 달러
 - 대일수출의 부진과 큰 폭의 대일수입 증가가 대일무역적자 증가에 기여
- '17.2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.3%에서 4.7%로 저하된 반면,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0.0%에서 12.4%로 상승
 -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.6%에서 8.2%로 상승

< 2017년 2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달러,%) >

	2017.1월			2017.2월			2017.1-2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대일 수출	2,137	19.3	-3.8	2,045	20.6	-4.3	4,182	19.9
대일 수입	3,751	21.4	-17.0	4,465	31.0	19.0	8,216	26.5
무역 수지	-1,613	24.5	-29.9	-2,420	41.4	50.0	-4,033	34.1

자료 : 한국무역통계

□ (대일 수출)

- '17. 2월 대일 수출은 2,045백만 달러로 전월에 이어 4.3% 감소
 - 이는 동기간 중 총수출 증가율은 7.2%나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대일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시사

	대일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7.1월	19.3	-3.8	11.2	-10.5	8.5	8.3
2017.2월	20.6	-4.3	20.2	7.2		
2017.1-2월	19.9	-	15.7	-		

○ 전월과 비교하여, 10대 수출품목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산업용전자제품이 수송기기를 제치고 대일수출순위 4위로 부상

-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 수출 증가폭이 26%로 가장 큼

- 대일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의 수출 감소폭이 -26.7%로 가장 큼

< 2017년 2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 목 명	2017.1월			2017.2월			2017.1-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	총계	2,137	19.3	-3.8	2,045	20.6	-4.3	4,182	19.9
1	철강제품	305	37.1	13.8	302	30.8	-1.0	608	34.0
2	광물성연료	303	60.3	-24.1	222	79.0	-26.7	525	67.4
3	전자부품	143	0.1	-33.8	135	3.5	-5.6	278	1.8
4	산업용전자제품	104	5.8	-13.3	131	43.1	26.0	235	23.6
5	석유화학제품	120	54.8	20.0	124	39.2	3.3	244	46.5
6	정밀화학제품	115	23.4	1.8	110	16.0	-4.3	225	19.7
7	수송기계	129	-6.9	24.0	109	16.5	-15.5	237	2.4
8	기계요소공구·금형	82	-1.3	6.5	88	2.1	7.3	170	0.3
9	농산물	79	33.0	-1.2	80	11.9	1.3	160	21.5
10	금속광물	80	4.8	-11.1	76	-6.7	-5.0	156	-1.0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(대일 수입)

○ '17.2월 대일수입은 4,465백만 달러로 전월비 19% 증가

-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증가율 -3.6%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서,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반영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7.1월	21.4	-17.0	19.7	-2.1
2017.2월	31.0	19.0	23.9	-3.6
2017.1-2월	26.5	-	21.7	-

- 전월과 비교하여 정밀기계가 전자부품을 제치고 대일수입순위 1위로 부상한 가운데 전자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수입이 증가
- 산업기계의 대일수입증가폭이 52.5%로 가장 크며 이어 정밀기계, 산업용전자제품, 정밀화학제품 등도 20% 이상의 높은 대일수입증가폭을 보임

< 2017년 2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7.1월			2017.2월			2017.1-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	총 계	3,751	21.4	-17.0	4,465	31.0	19.0	8,216	26.5
1	정밀기계	459	189.7	-22.2	628	215.8	36.8	1,088	204.3
2	철강제품	452	19.6	-7.8	501	30.3	10.8	953	25.0
3	전자부품	503	21.6	-8.4	483	18.7	-4.0	986	20.1
4	석유화학제품	342	21.7	-6.6	407	39.2	19.0	852	30.9
5	정밀화학제품	287	4.6	-24.3	367	17.6	27.9	654	11.5
6	기초산업기계	212	4.8	-30.9	250	1.8	17.9	462	3.1
7	산업용전자제품	188	9.1	-36.5	241	-3.5	28.2	429	1.6
8	수송기계	191	1.7	-12.0	198	12.6	3.7	389	7.0
9	플라스틱제품	175	3.2	-18.2	187	12.6	6.9	362	7.9
10	산업기계	120	-6.8	-30.2	183	3.4	52.5	303	-0.9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2.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

□ (동 향) '16.4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, 큰 폭 증가

- '16.4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359백만달러로 전기비 85.1% 증가
 - 건수로는 전기비 40% 증가
 -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전기비 39% 증가
- '16.1-4분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1,24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5.2% 감소
 -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는 1.9%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, 연간으로는 상대적으로 일본인투자가 부진

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(신고기준, 건, 백만달러, %) >

	2014		2015		2016.2분기		2016.3분기		2016.4분기		2016.1-4분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의 대한투자	352 (21.3)	2,488 (-7.5)	315 (-10.5)	1,665 (-33.1)	82 (34.4)	531 (229.8)	65 (-20.7)	194 (-63.5)	91 (40.0)	359 (85.1)	299 (-5.1)	1,246 (-25.2)
전체 외국인투자	2,463 (-5.6)	19,003 (30.6)	2,698 (9.5)	2,0909 (5.1)	760 (13.9)	6,279 (48.1)	716 (-5.8)	4,495 (-28.4)	844 (17.9)	6,250 (39.0)	2,987 (10.7)	21,299 (1.9)

주 : ()내는 전기비 증가율,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외국인직접투자통계

□ (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)

- 일본의 최대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아이리스 오야마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해 생활용품 제조 및 연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, 금년에 착공하여 2018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(2017.3.8. 헤럴드경제)
 - 아이리스 오야마는 한국 내 판매 확대를 위해 투자를 결정했으며 공항·항만 등 첨단 물류인프라를 갖춘 인천의 입지 여건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짐
- 일본의 전통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오쿠마 코퍼레이션사가 인천에 현지법인 설립을 투자계약을 체결(2017.3.9. 국민일보)
 - 오쿠마 코퍼레이션사는 한국 내 고객서비스 강화 및 인력양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지식기반 서비스용지 2853.3㎡ 부지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해 공작기계의 판매, 조작·지도와 자사 공장에서 구축, 축적한 최고 수준의 제조기술 노하우를 제공하는 한국 현지법인을 설립

□ (시사점)

-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,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킹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, 최근 엔저에 따른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 유턴 사례분석 등을 통한 차별화된 對韓투자 유치전략 필요

V. 참고 자료
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(2017.2월~2017.3월)

□ 국내 기관

- 『일본 대형은행들의 지방은행 재편 추진』 한국금융연구원, 2017년 3월18일
http://www.kif.re.kr/kif2/publication/pub_list.aspx?menuid=18
- 『일본은행, 금융정책 현상유지』 한국은행, 2017년 3월16일
<http://www.bok.or.kr/contents/total/ko/boardView.action?boardBean.brdid=134674&boardBean.menuid=2229&boardBean.rnum=1&menuNaviId=2229&boardBean.cPage=1&boardBean.categorycd=0>
- 『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대한 일본의 평가』 한국금융연구원, 2017년 3월4일
<http://www.kif.re.kr/kif2/login/login.aspx?returnurl=/kif2/publication/viewer.aspx?controlno=209825>
- 『미·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·일 경제 및 수출 여건 분석』 KOTRA, 2017년 3월2일
<http://news.kotra.or.kr/user/reports/kotranews/20/usrReportsView.do?page=1&reportsIdx=7174&orderByType=image&searchStartDate=&searchEndDate>
- 『한·중·일 간 산업별 무역비교우위의 변화 분석』 산업연구원, 2017년 2월6일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?sub_num=8

□ 일본 기관

- 『장기정책론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』 일본은행, 2017년 3월22일
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wps_rev/rev_2017/data/rev17j02.pdf
- 『국제무역이 일본의 서플라이체인에 미치는 영향』 경제산업연구소, 2017년 3월22일
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7e022.pdf>
- 『일본경제의 중기전망』 신금중앙금고 지역·중소기업연구소, 2017년 3월22일
<http://www.scbri.jp/PDFnaigaikeizai/scb79h28y07.pdf>
- 『제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디자인 등의 창조성의 중요성 및 시책검토 관련 조사연구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2017년 3월18일
<http://www.meti.go.jp/report/whitepaper/data/20170314002.html>
- 『기업경영의 신조류 : CSR에서 CSV로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2017년 3월16일
http://www.nri.com/jp/journal/2017/03/170315_1/
- 『글로벌 기업네트워크에서 본 일본기업의 현황』 경제산업연구소, 2017년 3월16일
<http://www3.keizaireport.com/report.php/RID/302645/>
- 『제 4차 산업혁명 연구회 운영지원 업무보고서』 큐슈지역산업활성화센터, 2017년 3월15일
http://www.kiac.or.jp/report/h27/#anchor_04
- 『CGS(기업지배구조)연구회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2017년 3월11일
<http://www.meti.go.jp/press/2016/03/20170310003/20170310003.html>
- 『IoT국제경쟁력 지표 : 10개국·지역의 국제경쟁력』 총무성, 2017년 3월11일
http://www.soumu.go.jp/menu_news/s-news/01tsushin02_02000106.html
- 『일본의 통계 2017』 총무성통계국, 2017년 3월11일
<http://www.stat.go.jp/data/nihon/index2.htm>
- 『2016년도 일본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앙케이트조사』 2017년 3월9일
<https://www.jetro.go.jp/news/releases/2017/99e9d2364b530eec.html>
- 『일본, 미국, 독일, 중국의 기계산업 수출 : 기업경쟁력, 국가경쟁력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2017년 3월8일
<http://www.iti.or.jp/kikan107/107oki.pdf>
- 『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파이낸스 수법의 조사사업』 경제산업성, 2017년 3월3일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8FY/000797.pdf

2. 주요 경제 일정

<3월 실적>

일자	주요 내용
6	- 제29회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
11	- 동일본대지진 6주년 추도식(도쿄)
13	- 日-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(도쿄)
15	- 日-모잠비크 정상회담
19	- 아베 총리 유럽으로 출발
20	- 日-독일 정상회담(하노바) - 日-프랑스 정상회담(파리)
21	- 日-EU 정상회담(브뤼셀) - 日-이탈리아 정상회담(로마)
24	- 제6회 미래투자회의
27	- '17년도 예산안 성립
28	- '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'가 실행계획을 결정 - JA전농(全農)이 자주개혁을 포함한 신사업전략을 발표
30	- 日-러시아 전략대화(도쿄)
31	- 후쿠시마현 3지역에서 원전사고에 따른 피난지시 해제

<4월(예정)>

일자	주요 내용
1	- 도시가스 소매 전면자유화 - JX홀딩스와 도넨제너럴석유가 경영통합하여 'JXTG홀딩스'가 출범 - 도시바가 분사화한 반도체메모리사업회사인 '도시바메모리'가 출범 - 가상통화법안 시행
20	- 도쿄 긴자에 대규모 복합상업시설·GINZA SIX 개업
하순	- 아베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, 日-러시아 정상회담